

## 언론동향(3.9.)

### 《언론보도 목차》

1. 평화누리길 종주 이젠 앱으로 인증 받으세요(동아일보) ..... 2
2. ‘평화누리길’ 앱 통해 종주 인증·길 안내 시작(경향신문) ..... 2
3. DMZ서 국군 전사자 4명 신원 확인...정전 2주일여 앞두고 전사 (중앙일보) ..... 3
4. DMZ다큐영화제, ‘DMZ인더스트리’ 프로젝트 접수 시작 (스포츠경향) ..... 5
5. 육군 제1보병사단 선진국방행정으로 지역주민들 호응 (중부일보) ..... 6

### 평화누리길 종주 이젠 앱으로 인증받으세요

#### GPS 탑재해 경로이탈땐 정보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경기도 최북단 트레킹 코스인 '평화누리길'의 안내와 종주 인증 서비스가 시작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기능을 갖춘 앱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평화누리길은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4개 시군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총연장 189km, 12개 구간으로 이뤄졌다. 연간 40만 명 이상 방문한다.

앱에는 평화누리길 12개 구간에 대한 정보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설치돼 구간을 이탈하면 '경로를 이탈했다'는 메시지가 뜨고 경보음이 울린다. 앱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바

탕으로 구간 반경 50m 안에 있을 때 인증 기록이 되고, 각 구간의 70% 이상을 완주하면 '전자스탬프'가 발급된다.

평화누리길 12개 구간의 전자스탬프를 모두 발급받으면 간단한 설문조사를 거치고 종주인증서와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12개 구간 완주자가 발급된 전자스탬프를 초기화한 뒤 다시 평화누리길을 종주하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DMZ 비무장지대'나 'DMZ 즐겨찾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음성 안내와 주변 관광지를 소개하는 기능도 추가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평화누리길' 앱 통해 종주 인증·길 안내 시작

#### DMZ 접경지 '스탬프 투어' 개발... 경로 이탈 땐 알람 울려

올해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경기 비무장지대(DMZ) 도보 여행길인 '평화누리길'에 대한 이용자 종주 인증과 길 안내 서비스가 시작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기능을 갖춘 앱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를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매년 40만여명이 찾고 있는 평화누리길 탐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트레킹 인증전문기관과 협력해 평화누리길 스탬프투어를 개발했다. 앱

은 평화누리길 12개 코스에 대한 정보는 물론, 위성항법시스템(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현재 어디를 걷고 있는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로 이탈 시에는 '알람'을 울려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다.

평화누리길 종주자들을 위한 '전자인증(스탬프)'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자인증은 코스 내 반경 50m 내에 위치해 있을 때만 기록이 되고, 각 코스의 70% 이상 완주했을 경우에 '전자스탬프'가 발급돼 보

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종주인증이 가능하다.

앱은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로 검색해 내려받으면 된다.

음성으로 길을 안내하는 방식과 주변 관광지를 소개하는 기능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2010년 5월 8일 개장한 평화누리길은 김포·파주·고양·연천 4개 시·군 12개 코스로 구성된 총 189km의 대한민국 최북단 도보 여행길이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 DMZ서 국군 전사자 4명 신원 확인...정전 2주일이여 앞두고 전사

[중앙일보] 입력 2020.03.09 09:41



고 임병호 일등중사와 고 김진구 하사 생존 당시 모습. 사진 국방부

국방부는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중에서 국군 전사자 4명의 신원이 올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고 정영진 하사(1953년 7월 27일 전사), 고 임병호 일등중사(1953년 7월 13일 전사), 고 서영석 이등중사(1953년 7월 10일 전사), 고 김진구 하사(1953년 7월 13일 전사)다.

고인들은 모두 제2사단 31연대 소속이다. 이들은 정전협상(1953년 7월 27일)

을 불과 2주일 앞두고 벌어진 '화살머리고지 4차 전투'(1953년 6월 29일~7월 11일) 중 전사했다.

이 전투는 정전협상 체결 직전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와 화살머리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국군이 중공군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벌인 전투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굴 당시 고인들의 유골 상당수는 개인호에서 부분 유해 및 골절된 상태로 발굴된 점을 볼 때 마지막 순간까지 진지를 사수하던 중 적 포탄공격에 의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중 국군 전사자 4명의 신원이 올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141번째 신원확인 된 고 서명석 이등중사의 유품, 사진 국방부

유해발굴 현장에서는 고인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수통, 탄약, 인식표, 계급장, 기장증, 대검, 전투화, 철모 등 다수의 유품도 발굴됐다.

4명의 전사자 중에서 3명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슬하에 어린 자녀를 남기고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고 김진구 하사의 아내 이분애(90)씨는 "남편의 시신을 못 찾아 무덤이 없으니 내가 죽거든 선산에 묻지 말고 뿌려달라고 말했을 정도로 오랜 세월 가슴 아파하며 살았는데 남편의 시신을 찾게 돼 같이 묻힐 수 있어 너무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고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의미 있는 귀환행사와 안장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 DMZ다큐영화제, 'DMZ인더스트리' 프로젝트 접수 시작

이다원 기자 edaone@kyunghyang.com  
입력 : 2020.03.09 09:46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조직위원장 이재명·집행위원장 정상진)의 다큐멘터리 종합 산업플랫폼 'DMZ인더스트리' 접수가 시작된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측은 9일 "참가작 프로젝트 접수가 이날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다큐멘터리 산업과 제작 활성화를 위해 작년 새롭게 신설한 DMZ인더스트리는 다큐멘터리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우수한 참가작들이 접수되어 총 29편의 작품에 3억 3천만원 규모의 제작지원금 및 7개 부문 현물지원이 이루어졌다.

올해 역시 전도유망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의 기획개발 단계부터 제작, 투자유치, 후반작업, 배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울러 지원하는 다큐멘터리 원스톱 지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며 ▲제작단계별 맞춤형 펀딩 프로그램 'DMZ 다큐 펀드(Docs Fund)'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투자 유치 전문 플랫폼 'DMZ 다큐 피치(Docs Pitch)' 부문의 공모를 진행한다.

'DMZ 다큐 펀드 2018 제작지원'과 'DMZ 다큐 펀드 2019 후반작업지원' 작품으로 선정된 이송준 감독의 '그림자꽃'은 세계적인 다큐멘터리영화제 IDFA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9 장편경쟁부문에 초청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아카데미 단편경쟁부문에 초청된 '부재의 기억'으로 많은 관심을 모은 이송준 감독의 신작 '그림자꽃'은 제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최우수한국다큐멘터리상과 개봉지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DMZ 다큐 피치 2019 러프컷PT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무시랜드라 심 감독의 '사막의 진주' 역시 IDFA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9 장편경쟁부문 및 인도네시아영화제 2019에 초청되었다. 'DMZ 다큐 펀드 2018 제작지원'과 'DMZ 다큐 피치 2019 러프컷PT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한명 감독의 '스모그 타운' 또한 IDFA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상영되었다.

'DMZ 다큐 펀드 2017 신진작가 프로젝트' 선정작인 말릭스 아민 아롬팍 감독의 '아수왕'은 IDFA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9 에서 FIPRESCI상을 수상했다. 'DMZ 다큐 펀드 2019 러프컷PT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박강아름 감독의 '박강아름 결혼하다' 및 위의 네 작품 모두 CPH:DOX 2020에 초청되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2003년에 시작된 CPH:DOX는 영화와 시각예술 분야의 중요한 감독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장이다.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 스포츠경향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육군 제1보병사단 선진국방행정으로 지역주민들 호응

☞ 박상돈 | Ⓞ 승인 2020.03.08 17:31



육군 제1보병사단이 선진 국방행정으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영농철을 대비한 출입 영농인들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호응을 같이 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육군제1보병사단

육군 제1보병사단이 선진 국방행정으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영농철을 대비한 출입 영농인들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호응을 같이 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육군 제1보병사단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사단은 지난 6일 남북을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인 통일대교를 비롯해 인근 안보관장지 임진각 일대에서 제독차량과 방역인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방역활동을 실시했다.

통일대교를 시작으로 실시한 이날 방역활동은 임진각 진입로부터 임진각 전망대와 망배단 등 파주시 일대에서 철저한 방역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1사단은 지난달 25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통선 전방에서 경작하는 출입 영농인들에 대한 필수 인원을 제외한 민통선 출입 통제에 들어갔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은 지속세를 보이고 있으나 군은 곧 시작되는 영농철에 대비한 민통선 출입 영농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일부터 통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군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민통선 출입이 기존대로 자유로워져 영농인들이 적기에 농사를 시작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농사 외에 시에서 추진하는 곤돌라 사업 및 하천 정비사업 등도 차질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군의 적극적인 행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1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파주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 할 예정이다"며 파주시의 현안은 물론 출입 영농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군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돈기자